

준비하고 있다가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본 문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

1. <기회>는 아무에게나 오지 않는다. <하늘 앞에 조건을 세운 사람>, <지난날 바라고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 온다.
2. <기회의 주인>인데도 그때 상황을 잘못 판단하면, ‘기회’를 뺏기기도 한다. 왜? <기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겸해서 오기 때문이다.
3. <좋은 기회>가 앞에 왔는데도, 그때 <다른 할 일>을 하느라 자기에게 온 기회를 중심하지 못해서 뺏기기도 한다.
4. <기회>는 ‘우연’ 같이 온다. 고로 자기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께 맡기고 행해야 된다.
5. 하나님은 <섭리사 부활기>를 맞은 신부들에게 ‘각종 기회’를

주셨다. <그 기회의 일>을 행해야 된다.

6.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지는 ‘끝’ 까지 해 봐야
안다.

7. 어떤 기회는 <매일> 오기도 하고, 어떤 기회는 <몇 주, 몇 달에
한 번> 오기도 하고, 어떤 기회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오기도 한다.

8. <기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자기에게 해당되는 사역을 하는 것이다.

9.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원하고, 또 <기회>가 와서 누리지만,
이 <기회>를 ‘뺏기는 때’ 가 있다. 고로 할 수 있는 대로 그때
마다 행해야 된다.

10. <많은 시간>을 가지고 행하려 하지 말고, <작은 시간>을 가지
고서도 ‘기회’ 를 얻을 수 있으니 그때마다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

11. <준비>해야 ‘기회’ 를 잡는다.

12. <준비>한 만큼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영광을 받으신다.

13.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곧 ‘기회’ 를 따라 <하나님의
육>이 되어 종일 뛰었더니 “오늘이 <기회의 날>이었구나. 하

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부지런히 행했더니 기회를 100% 잡았다.” 함을 깨닫게 되었다.

14.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때〉를 지켜라. 〈이때〉가 ‘그 때’다. 다음에 더 좋은 환경에서 하려 하지 말아라.” 하셨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아예 〈할 때〉 해 버려라. 〈본 김〉에 해 버려라. 〈간 김〉에 해 버려라. 그러므로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고 다녀야 된다.” 하셨다.

15. 어떤 일을 하든지 아예 ‘준비’ 하고 다니다가 ‘기회’가 오면 해 버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몸’을 쓰고 행하신다.

16. 한번 〈때〉를 놓치고 〈기회〉를 놓치면, 〈다음 때, 다음 기회〉는 1년, 3년씩 지나고서 다시 돌아오게 된다. 고로 〈주인이 나타났을 때〉 해야 된다.

17. 〈주인이 나타났을 때〉가 ‘기회’다.

18. 〈기회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과 주께서 움직이는 장소’다.

19. 매일 〈기회〉가 오니, 그 기회를 뺏기지 말고 ‘주인’이 되어 다스려라.

20.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도적같이 온다. 고로

아무나 ‘그때’를 맞지 못한다. <준비>만 할 뿐이다.

21. <준비한 자>만이 ‘도적같이 오는 기회’를 맞을 수 있다. 고로 항상 예비하고 준비하여 ‘합당한 때’를 맞아야 된다.
22. 선생도 ‘하나님께서 언제, 무엇을 행하실지 모를 때’가 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행하실 때가 있기 때문이다. 고로 선생은 아예 완전히 ‘준비’하고 다닌다.
23. 예수님 때 사마리아 여인도 ‘생각지 않은 때’에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평소 준비하고 간구한 대로, ‘기회’를 잡고 ‘소원’을 이룬 것이다.
24. <이 시대>도 동일하다. 모두 ‘사는 위치와 환경’이 다르니, 언제 만날지 모른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만난 자들>은 다시는 ‘기회’를 얻을 수 없다.
25. (성령) 항상 예비하고, 준비하고 주를 맞아라. 그러지 않으면, 그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린다. 고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모르고 끝난다.
26. <준비하고 기회를 맞았을 때>, 하나님도 성령님도 “잘했다.” 하시며 답을 주신다.
27. 항상 <준비>하여라. 그리함으로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28. <준비>하고 있다가 ‘기회가 왔을 때’ 빛 같이 빨리 행해야 된다. 그리고 행할 때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함께 해야 된다.
29. <기회>는 ‘순간’ 지나간다. 그러나 <순간 지나가는 기회>를 잡아 놓으면, <그 기회>는 ‘순간’ 지나가지 않고 ‘시간’을 두고 지나가게 된다.
30. <기회>를 잡아 놓으면, ‘그 기회의 때 안’에 행할 것들을 행할 수 있다.
31. <도적같이 행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항상 ‘준비된 상태’에서 행하여라.
32. <준비>해 놓고 있어야 원하는 것이 왔을 때, <그 준비한 것>으로 인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33. <마음>도, <생각>도, <몸>도, <행실>도 모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 거기에 해당되게 예비하여라.
34.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준비해 놓고, 끝까지 해야 된다. 이같이 행하는 자가 ‘복있는 자’다.
35. <준비>하고 있다가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